

정책분석과 동향



재생산건강 실태와 정책

이소영

성역할 가치관과 결혼 및 자녀에 대한 태도

임지영

성역할 가치관과 결혼 및 자녀에 대한 태도

Gender-Role Values and Attitudes toward Marriage and Children

임지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이 글은 성역할 가치관과 결혼 및 자녀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고 그 정책 함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별·연령별·혼인 상태별 성역할 가치관을 분석하고, 결혼과 자녀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분리하는 전통적 가치관은 점차 사라지고 가족의 상황에 맞게 역할을 통합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새로운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었다. 조사 대상자들은 결혼과 출산을 과거에 비해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혼과 출산을 결정할 때에는 경제적·사회적·제도적 요건 모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결혼과 출산이라는 생애과정 이행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개인이 결혼이나 출산 등 생애과정 이행을 선택할 때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제안하였다.

1. 들어가며

“가치관이란 개인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한 평가의 근본적 태도를 의미한다.”(한국인구학회, 2016, p. 39) 가족 가치관은 가족 형성 및 부부간의 역할 분담과 관련된 태도를 의미하며, 교육 수준 향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 혼인 지연, 출산 감소 등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계봉오, 2021, p. 82). 그리고 가치관은 다시 결혼과 출산 등의 인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은기수(2021)는 가족 가치를 포함한 거시적인 가치관의 변동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잉글하트와 레스타게의 문화변동이론을 소개한다. 이 이론은 1차산업 위주의 농경사회에서 2차산업 위주의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개인의 생애

는 교육-노동-결혼으로 이어지는 표준화된 생애 과정이 확립되었고, 이것이 지배적일 때는 생애 과정의 순서에 관한 연령 규범이 강하게 존재했다는 것이다(은기수, 2021, p. 3). 그러나 후기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개인의 생애과정은 탈표준화, 다원화되고 있어(Brückner & Mayer, 2005, p. 48), 기존의 연령 규범이나 생애과정이 더 이상 지배적이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다. 순서에 맞게 혹은 그 연령대에 맞게 생애과정을 소화해 내기보다 개인별로 다양한 삶의 양상을 보이게 되었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탈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 역시 지난 20여 년 동안 전통적인 가치관이 약화되어 왔고, 이 경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족과 출산 조사’ 뿐만 아니라 통계청의 ‘사회조사’,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 등에서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1년에 실시한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중 19~49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정 내 역할 분담과 결혼·출산 등의 생애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그들의 가치관을 성별·연령별·혼인 상태별로 파악하여 현시대의 가족 가치관이 특성별로 어떻게 다르게 분포되어 있는지 혹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2. 성역할 가치관 현황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는 다양한 문항을 통해 가치관을 조사하였는데, 이 중 총 5문항을 통해 성역할 가치관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먼저,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가정생활을 위해 남성과 여성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 좋다”, “아이는 아빠보다 엄마가 더 잘 키운다” 세 문항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 세 문항 모두 전통적인 가치관을 나타내는 문항이다.

〈표 1〉은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라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남성은 ‘전혀 동의 안 함’ 31.9%, ‘별로 동의 안 함’ 40.5%, ‘약간 동의함’ 23.1%, ‘매우 동의함’ 4.4%로, 동의 비율이 27.5%였고, 여성은 ‘전혀 동의 안 함’ 43.5%, ‘별로 동의 안 함’ 36.8%, ‘약간 동의함’ 16.2%, ‘매우 동의함’이 3.4%로 이 문항에 동의한 비율이 19.6%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 비율이 높았지만, 45~49세 남성의 59.4%, 여성의 72.9%가 비동의하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은 “가정생활을 위해 남성과 여성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 좋다”는 문항이다. 남성은 ‘전혀 동의 안 함’ 26.3%, ‘별로 동의 안 함’ 39.4%, ‘약간 동의함’ 29.4%, ‘매우 동의함’ 4.9%로 나타났고, 여성은 ‘전혀 동의 안 함’

표 1. 성역할 가치관(1):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단위: %, 명)

구분	남성					여성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사례 수)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사례 수)
전체	31.9	40.6	23.1	4.4	100.0 (7,117)	43.5	36.8	16.2	3.4	100.0 (7,032)
연령	$(\chi^2=353.842^{***})$					$(\chi^2=367.133^{***})$				
19~24세	40.4	41.3	15.3	3.0	100.0 (1,266)	61.3	29.8	6.9	2.0	100.0 (1,164)
25~29세	41.3	40.8	15.7	2.1	100.0 (1,225)	51.9	35.6	10.4	2.1	100.0 (1,094)
30~34세	36.5	39.7	20.0	3.8	100.0 (1,081)	46.5	33.6	16.7	3.1	100.0 (996)
35~39세	29.1	40.6	25.4	4.9	100.0 (1,206)	37.2	39.8	19.6	3.4	100.0 (1,152)
40~44세	25.7	38.7	28.7	6.8	100.0 (1,310)	36.1	39.2	20.4	4.3	100.0 (1,267)
45~49세	16.8	42.6	34.5	6.0	100.0 (1,028)	31.5	41.4	21.9	5.2	100.0 (1,359)
혼인 상태	$(\chi^2=223.845^{***})$					$(\chi^2=358.560^{***})$				
미혼	37.6	42.2	17.3	3.0	100.0 (3,649)	58.1	31.2	8.6	2.1	100.0 (2,400)
기혼	26.0	38.9	29.2	5.9	100.0 (3,468)	35.9	39.7	20.2	4.1	100.0 (4,632)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표 2. 성역할 가치관(2): 가정생활을 위해 남성과 여성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 좋다

(단위: %, 명)

구분	남성					여성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사례 수)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사례 수)
전체	26.3	39.4	29.4	4.9	100.0 (7,117)	35.2	38.7	21.7	4.4	100.0 (7,032)
연령	$(\chi^2=361.471^{***})$					$(\chi^2=396.547^{***})$				
19~24세	36.5	40.1	20.3	3.1	100.0 (1,266)	54.5	31.3	11.4	2.8	100.0 (1,164)
25~29세	35.0	39.2	23.3	2.5	100.0 (1,225)	44.9	34.8	16.5	3.8	100.0 (1,094)
30~34세	30.5	36.6	27.6	5.2	100.0 (1,081)	36.6	37.0	22.3	4.2	100.0 (996)
35~39세	23.4	39.2	32.2	5.2	100.0 (1,206)	26.5	43.0	26.0	4.5	100.0 (1,152)
40~44세	19.3	40.2	34.3	6.2	100.0 (1,310)	27.0	41.2	26.6	5.2	100.0 (1,267)
45~49세	11.3	40.9	40.1	7.6	100.0 (1,028)	25.2	43.3	25.9	5.6	100.0 (1,359)
혼인 상태	$(\chi^2=324.739^{***})$					$(\chi^2=478.052^{***})$				
미혼	33.7	40.6	22.5	3.2	100.0 (3,649)	51.9	32.4	12.5	3.2	100.0 (2,400)
기혼	18.5	38.1	36.6	6.7	100.0 (3,468)	26.6	41.9	26.4	5.1	100.0 (4,632)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표 3. 성역할 가치관(3): 아이는 아빠보다 엄마가 더 잘 키운다

(단위: %, 명)

구분	남성					여성				
	전혀 동의 안 함	별로 동의 안 함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사례 수)	전혀 동의 안 함	별로 동의 안 함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사례 수)
전체	12.0	26.7	46.8	14.5	100.0 (7,117)	16.8	35.3	38.7	9.2	100.0 (7,032)
연령	$(\chi^2=321.397^{***})$					$(\chi^2=257.467^{***})$				
19~24세	17.1	32.4	41.1	9.4	100.0 (1,266)	26.6	36.3	32.1	5.0	100.0 (1,164)
25~29세	16.6	32.7	41.1	9.6	100.0 (1,225)	23.2	37.5	32.7	6.6	100.0 (1,094)
30~34세	14.8	26.3	45.3	13.6	100.0 (1,081)	18.0	34.0	38.5	9.5	100.0 (996)
35~39세	9.8	25.1	51.0	14.1	100.0 (1,206)	12.3	37.4	41.4	8.9	100.0 (1,152)
40~44세	8.2	22.9	48.9	19.9	100.0 (1,310)	11.6	34.2	41.8	12.4	100.0 (1,267)
45~49세	4.6	19.6	54.4	21.4	100.0 (1,028)	10.9	33.0	44.0	12.1	100.0 (1,359)
혼인 상태	$(\chi^2=190.420^{***})$					$(\chi^2=268.502^{***})$				
미혼	15.1	30.6	43.3	11.0	100.0 (3,649)	25.7	36.0	33.1	5.2	100.0 (2,400)
기혼	8.6	22.6	50.5	18.3	100.0 (3,468)	12.2	34.9	41.6	11.4	100.0 (4,632)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35.2%, ‘별로 동의 안 함’ 38.7%, ‘약간 동의함’ 21.7%, ‘매우 동의함’ 4.4%로 나타났다. 이 문항 역시 전반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 남성(65.7%)에 비해 여성(73.9%)이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으며, 성별 구분 없이 연령이 높은 집단에 비해 낮은 집단이, 기혼에 비해 미혼이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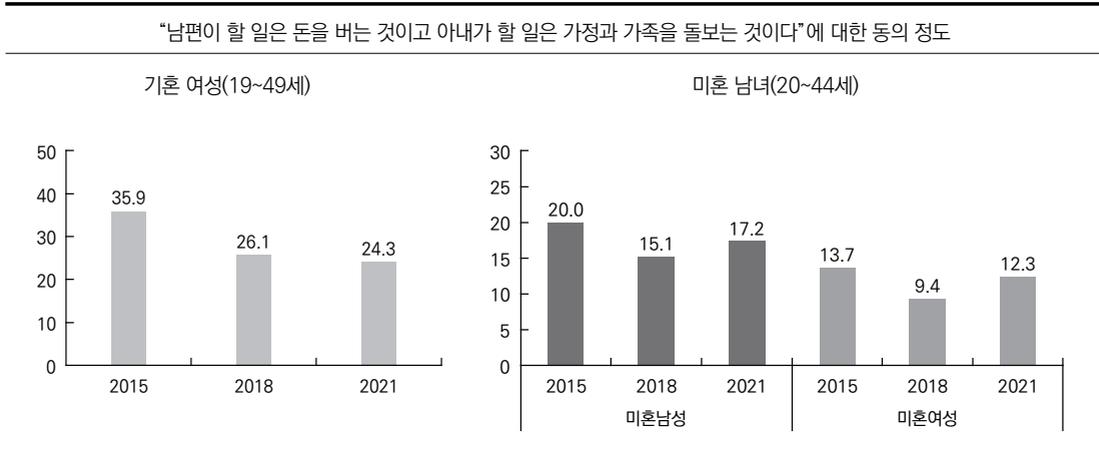
“아이는 아빠보다 엄마가 더 잘 키운다”는 문항도 일정 성별에 역할을 고정시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 문항은 이전의 두 문항에 비해 성별에 따라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남성은 ‘전혀 동의 안 함’ 12.0%, ‘별로 동의 안 함’ 26.7%, ‘약간 동의함’ 46.8%, ‘매우 동의함’ 14.5%로 나타났고, 여성은 ‘전혀 동의 안 함’

16.8%, ‘별로 동의 안 함’ 35.3%, ‘약간 동의함’ 38.7%, ‘매우 동의함’ 9.2%였다. ‘약간 동의함’과 ‘매우 동의함’을 동의 비율로 재구성해 본 결과, 남성은 61.3%, 여성은 47.9%의 응답 비율을 보였다. 비동의 비율은 각각 남성 38.7%, 여성 52.1%로 이전 두 문항의 비동의 비율보다 훨씬 더 낮았다. 남성과 여성 모두 고연령 집단일수록, 기혼이 미혼에 비해 해당 문항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앞서 분석한 문항 중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는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문항이다. [그림 1]은 해당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나타내는데, 2015년과 2018년에는 조사 대상에서 기혼

그림 1. 기혼 여성(19~49세)과 미혼 남녀(20~44세)의 성역할 가치관 추이

(단위: %)



주: 각 연도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3)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pp. 199, 355의 표를 참고하여 미혼 남녀 자료 재구성.

남성이 제외되었고, 기혼 여성의 조사 대상 연령은 15~49세였으며, 미혼 대상자의 연령을 20~44세로 한정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자료를 해당 대상자(기혼 여성과 미혼 남녀) 및 해당 연령(기혼 여성 19~49세, 미혼 남녀 20~44세)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혼 여성은 동의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으나, 미혼 남녀의 경우에는 2015년에 비해 2018년에는 낮아졌다가, 2021년에 다시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 가치관이 변동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다만, 미혼 남성에 비해 미혼 여성이 기존의 가치관에서 더 많이 탈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와 〈표 5〉는 역할을 부부별(혹은 성별)

로 구분하지 않고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문항이다. 〈표 4〉는 “돈 버는 일과 집안일은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인데, 집단별 차이가 거의 없다.

이 경향은 〈표 5〉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엄마와 아빠는 같은 비중으로 자녀 양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문항에 남성의 89.2%, 여성의 93.9%가 동의하였다. 연령별, 혼인 상태별 차이도 크지 않았다.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한 문항 3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고연령 집단이 저연령 집단에 비해, 기혼이 미혼에 비해 더 많이 동의하는 분포를 보였다. 전통적인 가치관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

표 4. 성역할 가치관(4): 돈 버는 일과 집안일은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한다

(단위: %, 명)

구분	남성						여성					
	전혀 동의 안 함	별로 동의 안 함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사례 수)		전혀 동의 안 함	별로 동의 안 함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사례 수)	
전체	0.9	3.9	36.5	58.6	100.0	(7,117)	0.6	1.8	22.7	74.9	100.0	(7,032)
연령	$(\chi^2=204.339^{***})$						$(\chi^2=121.866^{***})$					
19~24세	1.0	1.7	29.6	67.7	100.0	(1,266)	0.6	0.8	14.6	84.1	100.0	(1,164)
25~29세	0.6	1.9	32.5	65.0	100.0	(1,225)	0.5	1.8	18.5	79.1	100.0	(1,094)
30~34세	1.1	3.0	35.0	60.9	100.0	(1,081)	0.5	1.7	20.5	77.3	100.0	(996)
35~39세	0.7	4.0	37.9	57.4	100.0	(1,206)	0.7	1.9	25.3	72.1	100.0	(1,152)
40~44세	1.0	5.3	40.5	53.2	100.0	(1,310)	0.6	2.2	25.9	71.3	100.0	(1,267)
45~49세	1.3	8.3	44.8	45.6	100.0	(1,028)	0.7	2.3	29.4	67.6	100.0	(1,359)
혼인 상태	$(\chi^2=64.297^{***})$						$(\chi^2=141.307^{***})$					
미혼	0.8	2.7	33.9	62.5	100.0	(3,649)	0.4	1.1	15.1	83.4	100.0	(2,400)
기혼	1.0	5.2	39.3	54.4	100.0	(3,468)	0.7	2.2	26.7	70.5	100.0	(4,632)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표 5. 성역할 가치관(5): 엄마와 아빠는 같은 비중으로 자녀 양육에 참여해야 한다

(단위: %, 명)

구분	남성						여성					
	전혀 동의 안 함	별로 동의 안 함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사례 수)		전혀 동의 안 함	별로 동의 안 함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사례 수)	
전체	1.0	9.8	44.7	44.4	100.0	(7,117)	0.5	5.6	32.9	61.0	100.0	(7,032)
연령	$(\chi^2=135.466^{***})$						$(\chi^2=116.685^{***})$					
19~24세	1.0	6.0	40.3	52.7	100.0	(1,266)	0.5	4.7	22.4	72.3	100.0	(1,164)
25~29세	1.1	10.5	41.3	47.1	100.0	(1,225)	0.8	4.5	30.1	64.6	100.0	(1,094)
30~34세	1.3	8.1	42.4	48.3	100.0	(1,081)	0.4	4.6	33.1	61.9	100.0	(996)
35~39세	0.6	10.2	44.4	44.7	100.0	(1,206)	0.3	6.5	35.9	57.2	100.0	(1,152)
40~44세	0.5	11.5	48.9	39.1	100.0	(1,310)	0.5	6.6	37.3	55.6	100.0	(1,267)
45~49세	1.5	13.2	51.8	33.5	100.0	(1,028)	0.4	6.3	37.4	55.9	100.0	(1,359)
혼인 상태	$(\chi^2=55.153^{***})$						$(\chi^2=130.107^{***})$					
미혼	1.1	7.9	43.1	47.8	100.0	(3,649)	0.7	3.9	25.5	69.9	100.0	(2,400)
기혼	0.8	11.9	46.4	40.9	100.0	(3,468)	0.4	6.5	36.8	56.4	100.0	(4,632)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성별 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공동으로 가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두 문항에서는 집단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 특정한 대상에게 고정적인 역할을 부여하여 분담하기보다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역할 및 가정 내에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가치관이 사회 내에서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결혼과 자녀에 대한 태도

가치관은 가족의 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개인의 결혼과 자녀에 대한 태도는 앞으로의 우리 사회가 맞닥뜨릴 변화를 미

루어 짐작할 수 있도록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결혼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남성의 12.1%는 '반드시 해야 한다', 44.2%는 '하는 편이 좋다'고 응답하여 56.3%는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37.5%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응답하였고, 3.8%는 '하지 않는 게 낫다', 2.3%는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여성은 '반드시 해야 한다' 4.7%, '하는 편이 좋다' 30.8%로 총 35.5%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남성에 비해 20.8%포인트가량 크게 차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은 절반이 넘는 55.5%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응답한 점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하지 않는 게 낫다'는

표 6. 결혼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남성						여성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게 낫다	모르 겠다	계(사례 수)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게 낫다	모르 겠다	계(사례 수)
전체	12.1	44.2	37.5	3.8	2.3	100.0 (7,117)	4.7	30.8	55.5	7.3	1.7	100.0 (7,032)
연령	$(\chi^2=199.608^{***})$						$(\chi^2=193.292^{***})$					
19~24세	8.0	37.0	46.2	5.1	3.7	100.0 (1,266)	3.7	22.4	58.1	12.6	3.3	100.0 (1,164)
25~29세	8.8	41.7	39.8	6.1	3.6	100.0 (1,225)	4.5	30.6	52.1	9.1	3.8	100.0 (1,094)
30~34세	13.6	41.5	38.5	3.8	2.6	100.0 (1,081)	7.1	32.6	53.1	5.8	1.5	100.0 (996)
35~39세	14.2	46.4	35.6	2.2	1.5	100.0 (1,206)	5.2	32.7	55.1	6.3	0.6	100.0 (1,152)
40~44세	13.5	49.2	32.8	3.2	1.4	100.0 (1,310)	4.2	33.6	56.8	4.8	0.7	100.0 (1,267)
45~49세	15.4	50.2	31.4	2.0	1.0	100.0 (1,028)	4.0	32.8	56.7	5.6	0.9	100.0 (1,359)
혼인 상태	$(\chi^2=550.630^{***})$						$(\chi^2=272.823^{***})$					
미혼	7.7	36.2	46.3	5.8	4.0	100.0 (3,649)	3.4	22.0	59.9	11.0	3.8	100.0 (2,400)
기혼	16.7	52.7	28.3	1.6	0.6	100.0 (3,468)	5.4	35.4	53.2	5.4	0.7	100.0 (4,632)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응답도 7.3%로 남성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모르겠다’는 1.7%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확연히 낮았다.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나타났다. 여성은 모든 연령 집단에서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유보적 입장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남성은 연령이 낮을수록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확연히 높았다. 다만, 이미 결혼을 경험한 기혼 남성과 기혼 여성은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이 각각 69.4%, 40.8%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본인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남성의 경우 ‘꼭 있어야 한다’ 32.9%,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38.3%, ‘없어도 무관하다’ 23.2%, ‘모르겠다’ 5.6%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꼭 있어야 한다’ 28.1%,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36.2%, ‘없어도 무관하다’ 31.6%, ‘모르겠다’ 4.2%로 나타났다. 남성의 71.2%, 여성의 64.2%가 자녀가 있는 것이 나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뚜렷한 집단별 차이는 연령에서 찾을 수 있다.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미혼자 역시 기혼자에 비해 자녀의 필요성이 크다고 응답하지 않았다.¹⁾ 남성은 45~49세 집단의 16.6%가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응답하였고, 낮은 연령 집단일수록 이 비율이 높아

19~24세 집단은 총 32.1%가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응답하였다. 여성은 45~49세 연령 집단에서는 남성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18.2%가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응답하였으나, 25~29세는 42.5%, 19~24세는 55.0%가 그렇게 응답하여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연령에 따라 가족 가치관이 급격히 달라지는 것을 방증한다. 결혼에 대한 태도 중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응답한 집단과 본인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중 ‘없어도 무관하다’고 응답한 집단의 성별·연령별 분포를 도식화해 보면 그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비혼이나 무자녀 선택이 더 이상 주목받을 만큼 특수하지 않은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을 통해 미혼자의 결혼에 대한 태도(하지 않는 게 낫다)와 본인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없어도 무관하다)의 시계열 변화를 비교해 보았다. 연령은 20~44세로 제한하여 분석하였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미혼 남성의 비율은 2015년 3.9%, 2018년 6.6%, 2021년 6.8%로 상승하였다. 미혼 여성의 비율은 2015년 5.7%에서 2018년 14.3%로 크게 증가했다가 2021년에 10.9%로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인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미혼 남성의 비율은 2015년 17.5%, 2018년 28.9%, 2021년 38.5%로 급격히 상승하였는데, 미혼 여성의 비율은 2015년 29.5%,

1) 미혼자가 기혼자에 비해 연령이 낮게 나타나므로 이 차이에는 연령의 효과가 작용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표 7. 본인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남성					여성				
	꼭 있어야 한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없어도 무관하다	모르겠다	계(사례 수)	꼭 있어야 한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없어도 무관하다	모르겠다	계(사례 수)
전체	32.9	38.3	23.2	5.6	100.0 (7,117)	28.1	36.2	31.6	4.2	100.0 (7,032)
연령	$(\chi^2=491.298^{***})$					$(\chi^2=755.520^{***})$				
19~24세	16.8	41.0	32.1	10.0	100.0 (1,266)	9.4	28.8	55.0	6.8	100.0 (1,164)
25~29세	23.2	38.9	30.7	7.3	100.0 (1,225)	18.7	33.5	42.5	5.4	100.0 (1,094)
30~34세	28.6	42.2	22.5	6.8	100.0 (1,081)	27.0	36.6	31.8	4.6	100.0 (996)
35~39세	42.3	36.6	17.4	3.7	100.0 (1,206)	32.6	38.8	24.0	4.6	100.0 (1,152)
40~44세	42.8	35.6	18.8	2.8	100.0 (1,310)	38.6	37.3	21.6	2.6	100.0 (1,267)
45~49세	45.4	35.5	16.6	2.5	100.0 (1,028)	38.7	41.2	18.2	1.9	100.0 (1,359)
혼인 상태	$(\chi^2=1098.458^{***})$					$(\chi^2=1128.302^{***})$				
미혼	17.3	39.5	34.3	8.9	100.0 (3,649)	8.9	30.6	53.2	7.3	100.0 (2,400)
기혼	49.3	37.0	11.6	2.1	100.0 (3,468)	38.0	39.1	20.4	2.6	100.0 (4,6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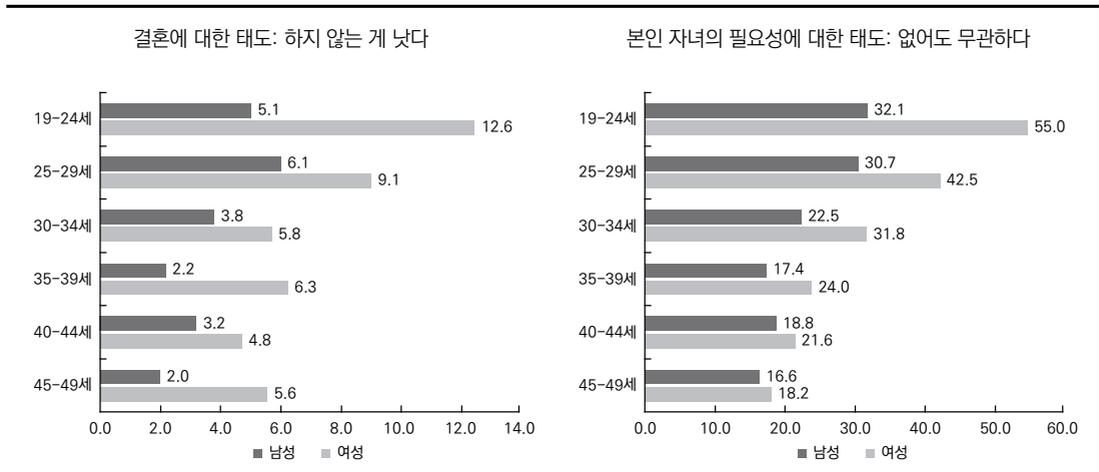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 $p < 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2. 미혼 남녀(19~49세)의 결혼과 본인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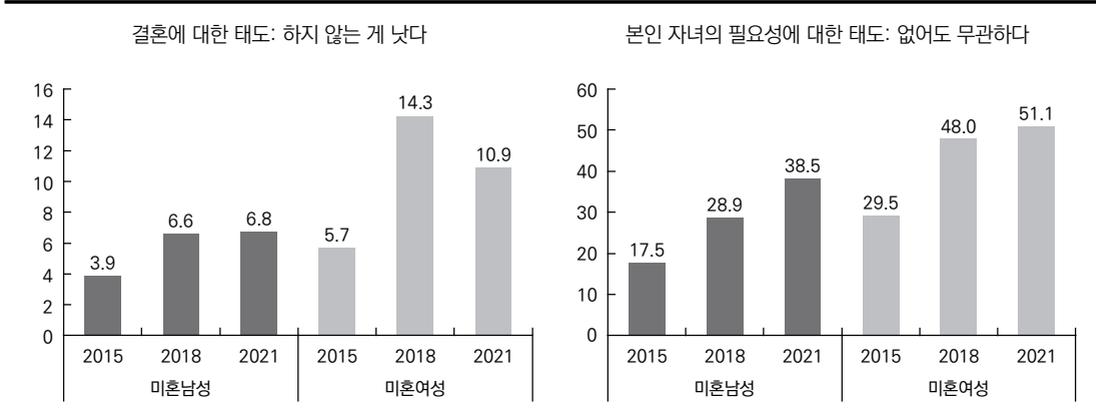


주: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그림 3. 미혼 남녀(20~44세)의 결혼과 본인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추이

(단위: %)



주: 각 연도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2)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pp. 315, 333의 표를 참고하여 2015년, 2018년 자료 재구성.

2018년 48.0%, 2021년 51.1%로 남성의 변화 폭에 비해 더 크게 변화하였다.

3. 결혼과 출산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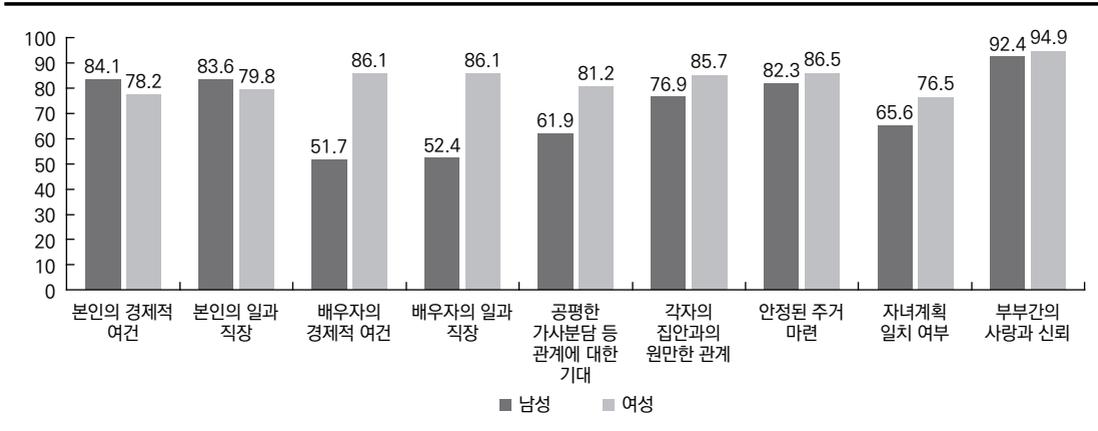
[그림 4]와 [그림 5]는 전체 조사 대상자들이 결혼과 출산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제시한 각 항목에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를 합산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그 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먼저, 결혼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5순위까지 살펴보면, 남성은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92.4%) - ‘본인의 경제적 여건’(84.1%) - ‘본인의 일과 직장’(83.6%) - ‘안정된 주거 마련’(82.3%) - ‘각자의 집안과의 원

만한 관계’(76.9%)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94.9%) - ‘안정된 주거 마련’(86.5%) - ‘배우자의 일과 직장’(86.1%) - ‘배우자의 경제적 여건’(86.1%) - ‘각자의 집안과의 원만한 관계’(85.7%)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모두 공통적으로 가족을 새로 형성할 때에는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남성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2~5순위 모두 경제적인 여건이었다. 그중 주거 마련에 비해 본인의 경제적인 측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성은 사랑과 신뢰 다음으로 안정된 주거 마련을 중요하다고 꼽았다. 그 뒤를 잇는 것이 배우자의 경제적 측면이었다.

출산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

그림 4. 결혼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중요+매우 중요)

(단위: %)



주: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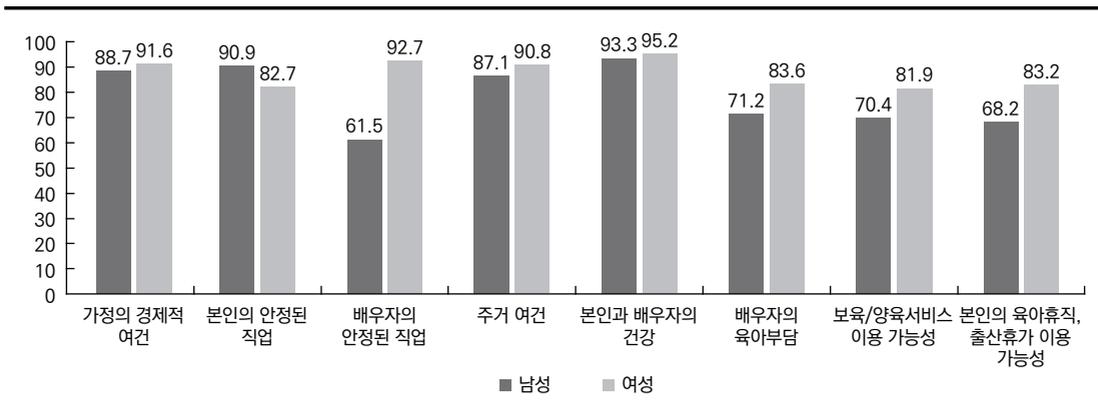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항으로는 총 8개의 하위 항목을 제시하였다. 남성이 중요하게 꼽은 5순위 항목은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93.3%) - '본인의 안정된 직업'(90.9%) - '가정의 경제적 여건'(88.7%) - '주거 여건'(87.1%)

- '배우자의 육아 분담'(71.2%)이었다. 여성은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95.2%) - '배우자의 안정된 직업'(92.7%) - '가정의 경제적 여건'(91.6%) - '주거 여건'(90.8%) - '배우자의 육아 분담'(83.6%)이

그림 5. 출산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중요+매우 중요)

(단위: %)



주: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

었다. 결혼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항목의 순서에 비해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남성과 여성 모두 건강과 경제적 측면, 주거 여건과 배우자의 육아 부담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다만 남성은 본인의 직업을, 여성은 배우자의 직업을 2순위에 두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양육이 주로 여성의 부담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이 이 점을 고려하여 본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완할 수 있는 지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반영된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4. 나가며

한국은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가치관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혼인·가족에 대한 관념이 변화하고, 가족 구성이 변화하고 있으며, 노동이 필연적인 사회로 전환되면서 ‘남녀 모두 일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20, pp. 19-20). 그리고 남녀 모두 ‘노동 중심 생애’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청년은 자신의 노동 생애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는 사회를 희망한다(대한민국정부, 2020, p. 20). 가족을 중시하던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방향으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성역할 가치관 및 결혼과 자녀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정책 함의를 제

시하고자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의 역할을 구분하여 담당하고 성별에 따라 역할 부담을 지우는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은 점차 사라지고, 상황에 맞추어 구성원이 함께 역할을 통합적으로 담당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가치관이 보편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조사 대상자들은 결혼에 대해서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46.4%)는 의견과 ‘하지 않는 게 낫다’(5.5%)는 의견이 긍정적인 태도(46.0%)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본인 자녀는 ‘없어도 무관하다’(27.4%)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박종서 외, 2021, pp. 380, 384).

주목할 만한 점은 앞으로 가족을 새롭게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저연령·미혼자의 가치관인데, 저연령 집단일수록 결혼에 대한 태도에 좀 더 선택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본인 자녀의 필요성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남녀 모두 결혼과 출산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모든 사항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경제적 측면과 주거 여건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는데,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가치관이라는 정책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에, 우회적으로 닿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혼과 출산 등의 생애과정 이 더 이상 필수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장된 시점에서 개인이 부담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결혼과 출산 결정에서 경제

적인 측면과 주거의 측면을 중요시하는 만큼 안정적인 일자리(또는 소득) 확보가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조성하여 개인의 가족 형성, 그리고 생애주기의 단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㉞

참고문헌

- 계봉오. (2021). 가족가치관 및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 통계청 통계개발원(편저), 한국의 사회동향 2021(pp. 82-91). 대전: 통계청 통계개발원.
- 대한민국정부. (2020).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2025.
- 박종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 송지은.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은기수. (2021). 후기산업사회로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변화. 보건복지포럼, 2021년 3월 호, 2-6.
-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인구학회 (편). (2016). 인구대사전. 대전: 통계청.
- Brückner, H., & Mayer, K. U. (2005). De-standardization of the life course: What it might mean? And if it means anything, Whether it actually took place?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9, 27-53.

Gender-Role Values and Attitudes toward Marriage and Children

Jiyoung Lim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gender role values, attitudes toward marriage and children and to suggest its policy implications. The current status of gender role values by gender, age, and marital status and how attitudes toward marriage and childbirth are changing were analyzed using the data from the '2021 The National Family and Fertility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traditional values gradually disappeared, and a new value that the family role should be played in an integrated manner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the family is spread. The survey respondents thought more flexibly about marriage and childbirth than in the past. However, when deciding on marriage and childbirth, survey respondents responded that economic, social, and institutional requirements were all important. It is understood that they feel burden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life course such as marriage and childbirth. Based on the findings, this paper suggests to create an environment that can reduce the burden when individuals choose to implement the life course such as marriage or childbirth.